전문건설업체로서는드문연혁50주년

장재철 (주)신탄진기와 사장

"지붕 판금업도 과학적 · 체계적 운영 필요"

전문건설 면허의 역사를 뛰어넘은 업체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붕 판금업 외길을 걸어온 '신탄진기와'가 그 주인공. 신탄진기와는 지난 달 15일 창립 50주년을맞았다.

1956년 충청남도 신탄진에서 신탄진요업으로 출발한 신탄진기와는 건축용 지붕재와외부마감재를생산 · 판매시공해온 지붕 · 판금 전문업체다. '신탄진요업'의 간판을 내걸 당시는 6 · 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차차 경제가 재건되어 산업성장이이루어짐에따라공장건물과교육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등으로공사의 범위를 확장하던 시기여서 신탄진기와도 함께쉽게성장해나갈수있었다.

"창업주인 선친 장창윤 회장께서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선견지명을 갖고 계셨던 것이지요. 전쟁뒤나라를 재건하는과정에서순탄하게성장해나갈수있었습니다."

장재철신탄진기와사장은"그러나, 단순히 회사 이익과 성장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질좋은기와를생산하기위해각종노력과 연구를아끼지않았습니다"라고밝혔다.

신탄진요업은 창업 당시부터 주력 생산품목이었던오지기와제품에대한지속적인 기술개발노력으로동파방지및강한내구성등제품의외적 · 질적향상을위해노력한결과,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등으로부터 많은 호평과 함께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장 사장은 '때마침 불어닥친 새마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시대적인 협조도 많이 받았다고말했다.

신탄진기와로 재창업한 1989년부터는 오지기와의생산과함께제품의시공까지시도하게 되었다."단순한 제품 생산에서 한 발 더나아가보다능동적으로건축물에어울리는지붕의형태, 색상, 재질등을건축주에게 제공하기위해지붕시공업에도전하게되었습니다."외장재로서의지붕재만을추구하던 것에서 탈피해 설계, 견적, 자재, 시공의 시스템적인공사가가능해진것이다.

장사장은지난1997년말외환위기를겪으면서 그 동안 안주했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붕 판금업도좀더체계적이고과학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판단한장사장이가장처음시도한것은공사시공에대한ISO 인증획득. 신탄진기와는1999년 10월ISO 인증획득을계기로현장관리의합리화와공사관리의시스템화, 자재 공급 및 인원 관리의 시스템화를 구축하였다. 신탄진기와는ISO 인증을 필두로업무의전산화를위한ERP 시스템의 도입과 자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customizing 실시, 홈페이지의구축, 온라인 홍보등을통해급변하는건설업계의현실에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장 사장은 기와만큼은 우리나라 기와가 품질면에서가장훌륭하다고자부하고있지만유럽등지에서생산되는기와의특수성또한인정하고있다."유럽산은흙과제조방식의차이로인해우리나라를비롯한 동남아산과는 품질 면에서 또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상회하고있는부분도없지않습니다."

형태의다양성뿐만아니라예술적인표면처리는우리가충분히채택해야할부분이라고판단한장사장은이미수년전부터자사의 직원들을 유럽 현지로 파견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스페인에위치한세계최대기와제조업체중하나인 'Tejas Bprja'사와독점계약을체결하고 국내 시장에 고급 소재를 소개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갖춘상태이다.

장 사장은"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며앞으로도계속노력하는자세로창립100주년 연감을발행하는날까지최선을다하고건설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